

2015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3.26(목), 15:00~17: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10일 '뉴스브런치' 대기업 사외이사는 '거수기'...찬성률 99.7% 내용에서는 맨 마지막에 사외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에 대해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함. 그 보다는 사외이사들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 받고 있는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뉴스기사의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김연화 부위원장)
- 4일 '출발64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대책 마련 시급" 기사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석 17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에 세 명이 부족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과 이와 관련하여 비판 여론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하여 사전에 여야가 충분한 찬반토론이 없이 표결에 임했다는 점, 임시국회 마지막 날 관심사는 김영란 법이었는데 많은 관심 속에 김영란 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의원들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의 통과에 의심 없이 자리를 떠난 점,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점 등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원인 등의 지적이 없어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15일 '뉴스17' 초저금리시대 부동산 시장 들썩, 집값인상 강북, 지방까지 확산될까? 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설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금리인하로 인해 신규분양아파트, 재건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 투자, 빌라·오피스텔·상가로 눈길을 돌린다는 것과 월세는 전세로, 전세자는 내집마련 전략이 올바른 방향이며 지방과 수도권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1%대 금리 은행예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투자에 집중된 정보여서 저금리시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없어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24일 대형마트의 실적부진을 지적한 보도의 원인분석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보다는 온라인 쇼핑 성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은 다소 단편적이었음. 온라인 쇼핑의 증가추세가 빠르기는 하지만 아직 오프라인에 비하면 규모가 미미함. 2014년 기준 전체 소매판매량이 359조인데, 그중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량은 아직까지 41조로 11% 규모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대형마트의 실적급락은 영업

규제와 같은 규제정책들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정부가 경제이슈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임. 이런 지적이 좀 더 심도 있었으면 함(이용우 위원)

- 24일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초단기 근로자 급증' 내용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초단기 근로자가 급증하며, 최근 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유사한 보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시청자들에게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다만, 기업이 정규직을 줄이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나 고용의 질 개선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부분은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심층취재가 있었으면 좋았음(이용우 위원)
- 최근 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변협의 주장과 해당 전직 대법관 측의 주장을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한 것은 높이 평가함.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음. 제3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람(최진녕 위원)
- 6일 '뉴스와이12' 대졸 공채 '탈스펙' 바람...LG·현대차에 SK까지 보도에서는 SK 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이렇게 3개의 그룹 공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제목에는 LG가 언급되어 있고 포스코는 빠져있음. LG를 제목에 넣었다면 LG공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LG공채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제목에 LG를 빼고 포스코를 넣었어야 하는데 제목과 내용의 정합성이 아쉬움(김연화 부위원장)
- 10일 '뉴스브런치' 노후 불안감에...50세 이상 소비 성향 급락 내용에서 평균 소비 성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비성향 급락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는데, 소비 성향 급락이 실제로 50대에서만 나타났는지, 경기 불황으로 모든 나이 대에서 급락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없어 기사에 정확성이 떨어짐(김연화 부위원장)
- 최근 박태환이 스위스에서 테스토스테론 복용과 관련된 도핑 제재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하고, 그 후속 조치로 18개월의 자격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음. 연합뉴스TV가 신속하고도 상세히 보도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도핑 제재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젊은 법조인이 마치 도핑과 관련된 사안의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음. 시청자의 입장(최진녕 변호사 현재 한국 도핑제재위원회 위원)에서는 그 패널의 설명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음. 이미 2월 달에 이와 관련된 최초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담당자로서는 마땅히 한국 도핑제재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도핑과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고, 관련 전문가의 출연을 통해 보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최진녕 위원)

▲ 사건사고 보도시 개선 및 유의사항

- 3일 '두 남편·시어머니 '연쇄 독살'...보험금에 눈먼 엽기 범행' 보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시어머니를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자기 딸에게도 제초제 탄 음식을 먹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인은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에 소량씩 중독되면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악용해 자살이나 병사로 위장했다는 보도는 범행에 사용한 약물과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모방범죄 우려가 있음(김용주 위원)
- 13일과 20일 '맹찬형의 시사터치' 서세원, 서정희 부부 폭행사건 관련 내용에서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서정희 부부 '폭행사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스트레이트기사로 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들추고 자녀들의 이야기와 더구나 재판중인 사건을 해설하는 것은 아무리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됨(김용주 위원)
- 15일 '뉴스17' '창원상가 불'에 이어 '여자골프 유소연, 박인비 제치고 시즌 첫 우승'을 속보로 내보냈는데, 유소연 선수의 우승 소식이 속보로 다룰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화재 속보에 이어 바로 골프 우승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 긴박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성낙용 위원)
- 리퍼트 대사 피습 단독 영상 전달은 주요 뉴스로서 인정함. 사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 역시 선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자제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 이후 정말 많은 보도가 반복 되었는데 피를 흘리는 장면을 다소 과하게 노출 시키거나 범인을 제지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보여주어 불편한 점이 있었음. 뉴스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반복하여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지양하길 바람(이헌규 위원)

▲ 추측성 광고성 등 보도의 가치 고려해야

- 18일 '재계 길들이기...검찰 칼바람에 기업들 불멘소리' 내용에서 최근 상황은 과거 몇 차례 경제위기에 버금갈 만큼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곳곳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 기업수사는 안 그래도 움츠러든 기업들이 더욱 투자와 채용 등을 확대지향적인 경영을 접고 수세적인 현상유지로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단죄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자칫 기업 전반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행태나 추측성 보도는 문제가 있는 듯함. 그런 면에서 기업수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보도방향이 남다르게 주목할 만함. 다만, 보도 내용 중 "재계 길들이기" 등 일부 정치적인 해석 등을 지양

했으면 더 좋을 뻔했음(이용우 위원)

- 22일 뉴스에서 '햄,소세지의 건강 변신'이라는 변화를 보도하며 그동안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라는 햄과 소세지의 변신을 보도하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기자가 특정기업(CJ 푸드) 복장과 모자까지 착용하고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기업 광고를 시청하게 강요한다는 느낌이 듦(이용진 위원)
- 가수 태진아 씨의 해외 도박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언론의 정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됨.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 TV도 연예인 한 사람의 해외 원정 도박 여부를 매일 연속해서 방송하는 것은 - 심하게 말하면 - 전파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봄(최진영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15일 '뉴스09' 한 주간의 기업기상도에서 기업의 실적 및 상황을 맑음과 흐림의 기상 현상으로 표현한 것은 신선함. 신선한 기획에 걸맞게 배경화면도 맑음과 흐림에 맞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음. 맑음과 흐림에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림의 내용이 날씨와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짐. '맑음'의 기업으로 세븐 일레븐 등 편의점 기업과 포스코를 소개했는데 포스코의 알루미늄 강판 실적 부분의 좋은 평가를 내세웠으나, 포스코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전 현직 임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신용평가가 떨어지는 등의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기상도 코너에서 주는 메시지의 효과는 떨어짐(성낙용 위원)
- 간통죄 폐지 뉴스와 관련하여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낮방송의 뉴스를 고려할 때 자극적인 화면의 수준이 지나침.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 등을 보여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10일 '뉴스위치' IS, 이라크·시리아서 수세 전환(?) 내용에서 언론의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뉴스 제목에 "(?)"을 포함시키는 것은 뉴스의 신뢰도 및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강대인 위원장)
- 8일 오후 연합뉴스 스크롤 "아말 클루니 미 컬럼비아대서 인권강의 한다"고 내보냈는데, 아말 클루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청자가 많을 것 같음. 가끔 직책이나 인물의 소개 없이 이름만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주 자막은 깔끔해지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자막 변경 타이밍이 좋음. 단지 자막을 발언이나 설명으로 사용하면서 자막의 효과가 다소 떨어짐. 사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임. 스크롤 자막은 흐름속도, 글씨 포인트, 글씨색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하고 자막의 효과가 있음. 단, 자막 뉴스에 대한 분류가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의견

- 4일 오전 8시 40분 뉴스브런치에서 여자 앵커의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를 단독기사로 전달하는 것이 좋았음. 매시간 뉴스 스크롤로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별도 편성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겠음(강대인 위원장)
- 토요일 주말 오후 뉴스의 경우 예를 들어 5시, 6시 뉴스 프로그램의 차이가 거의 없음. 새로운 뉴스가 없을 경우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이나 대체로 뉴스의 반복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오전 6시부터 9시 40분까지의 아침 뉴스들(대한민국 첫 뉴스 모닝 Y, 뉴스640, 뉴스 라운드, 뉴스 브런치 등)의 차별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함. 물론 매번 뉴스가 달라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어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임. 오전 6시부터 9시 40분까지의 뉴스의 내용이 유사해도 시청층이 다른 만큼, 이들의 욕구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한민국 첫 뉴스 모닝 Y와 뉴스 640은 직장인을 겨냥하여 주요 뉴스의 제목을 중심으로 전달하면 좋겠으며, 뉴스 라운드는 앞의 뉴스보다는 심층적인 뉴스를 전달하고, 뉴스 브런치는 뉴스 해설을 보냈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뉴스 브런치의 앵커들의 진행 방법이나 복장(정장)이 뉴스 브런치라는 제목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음. 오히려 뉴스 라운드 앵커의 복장이 캐주얼해서 보기에 불편함. 뉴스 브런치의 형식(진행 방법이나 복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최현철 위원)
- 4일 오전에 발생한 미국 대사(마크 리퍼트) 피습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이를 단독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도한 점은 높이 평가함. 하지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8시부터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이 사건만을 보도하고 같은 장면을 20분 넘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날 준비한 다른 뉴스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출연자 및 현장리포트 관련 의견

- 4일 뉴스현장14 정치권 이슈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자상이 출연했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음. MC가 끼어들어 토론의 방향을 바꾸느라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음. 적절한 출연자인지, 출연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람(강대인 위원장)
- 발생한 뉴스에 대해 일일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에서 분석과 해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일부 이슈의 경우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패널이 과연 그 이슈에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함. 미래경영연구소장, 포커스컴패

니 전략연구소장 등의 패널은 전문성이 두루 있는 분들로 판단되지만 총기관리, 모방법죄, 청와대비서실장 인선 논평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너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해볼 부분임(양승찬 위원)

- 2월 27일 오전 경기 화성 총기 사고 현장은 순발력 있게 단독 영상을 잘 전달함. 다만 사운드에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앵커와 전문가 전화 연결시 현장음과 섞여 소란스러운 전달 부분이 있었음(양승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13일 오후 7시 반 북한소식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맞은 북한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비꼬거나 뒤집어보기보다는 현실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일이 사회 전체에 퍼지길 바라는 진행자의 멘트는 성숙해 보여 좋았음. 북한 어린이들의 시설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았음(강대인 위원장)
- 20일 '미니다큐 오늘' 암을 이기는 예방 내용에서 세 번이나 암을 극복한 황병만씨의 사례를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암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시청자들에게 암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음(김용주 위원)
- 타 종편과 중복되는 패널들이나 수준 이하의 패널들로 방송 자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시청자로 하여금 채널을 돌리게끔 하는 것과 비교해서 2일 '북한은 오늘'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위협 등 위기상황을 패널이 참여해 북한의 상황을 분석 보도하는데 패널로 참여한 북한전문기자 '장용훈'기자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성을 갖고 보도해줘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음. 분야별 전문기자들을 패널로 활용해서 시청자의 신뢰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음(이용진 위원)
- 보도되는 대부분의 뉴스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권별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음. '클릭! 전국은 지금'은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 특히 지역 신문(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기사를 중심으로 지역구 이슈를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포팅 해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균형 있는 뉴스를 제공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이헌규 위원)
- 현대 추상 표현의 양대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 '마크로스코'의 전시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음(3.23~). 전시에 앞서 3월 주말 프라임시간대에 시리즈로 방영된 <특집 -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로스코> 5부작 다크가 방영되어 이색적이었음. 현대 미술계 거장 작가의 일대기부터 작품세계까지 깊지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다크였다는 느낌.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 높은 다크멘터리를 직접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다가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길 바람(이헌규 위원)
- 홈페이지 메인에 뉴스Y 등의 문구가 사라지고 '연합뉴스TV'로 깔끔하게 정리되

어 보기 좋음(이헌규 위원)

▲ 기타 의견

- 23일 개막한 '마크 로스크 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데 3월 11일, 14일, 19일, 22일 계속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통해 궁금증 해소에 기여를 하였고, 가장 관심 많은 전시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외에도 남북한 건축의 현재를 보여주고 작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황금사자상 수상 귀국전인 '한반도 오감도'전 등 다양한 전시를 소개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시청자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도서나 공연 안내 시에도 다양하게 보도되길 희망함(이용진 위원)
- . (끝)